경제민주화시대 재벌의 위상과 역할

'해체론'서 '옹호론'까지 한국재벌의 실태와 미래 분석한 책들 관심끌어

"현대 45개사 27조, 삼성 55개사 21조, 대우 22개사 19조, 럭키금성 54개사 19조, 선경 32개사 10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우리나라 5대 재벌의 자산총액은 97조가 넘고 지난 1년동안 15.2%의 신장을 보여 형식상 계열사의 수는 줄었으나 확장세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기반은 재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성장한 재벌은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단순 긍정의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모색이란 과제로 인해 요즘 변화의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대기업제도 내세운 재벌해체론 눈길

문어발식 재벌의 해체와 독립적인 전문대기업으로의 변신을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판된 건국대 최정표 교수의 「재벌해체」(비봉출판사)는 그래서 주목을 끄는 책. 모두 2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부는 2차대전 전후에 이뤄진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T.A. 비숀이 저술한 글의 번역부분이고, 2부가 한국재벌의 해체구조를 해체의 필요성과 개념,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눠 설명한 부분. 이 2부에서 최정표교수는 "재벌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재벌 내 모든 개별기업들의 분리 독립과 독립적인 전문대기업제도의 확립이 재벌해체의 중요한 내용"임을 역설한다.

지금까지 재벌과 관련된 출판물은 상당수가 된다. 미국경제전문가에 의해 씌어진 대기업의 전략과 구조를 검토한 책에서부터 재벌그룹의 성장사를 다룬 책, 그리고 재벌총수들의 일대기를 모은 것 등등이 재벌관련서들의 주종을 이룬다. 이 가운데 재벌해체론에 중점을 둔 책들을 꼽아보면 「한국재벌의 해부」(유인학, 풀빛) 「재벌」(강철규 외, 비봉) 「재벌 날개를 달아라」(민병문, 동아일보사)를 들 수 있다.

먼저 현 국회의원인 유인학씨의 "독점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현실태와 국가권력과의 결합 메카니즘을 분석"한 책인 「한국재벌의 해부」는 재벌해체론과 국가귀속론, 공기업화론, 법적 행정적 제재론, 자기혁신론 등의 주장의 근거와 장단점을 살피고 형평성과 경제적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의해 재벌문제는 해결된다"는 정치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다 강한 어조를 띤 강철규·최정표·장지상씨의 공저인 「재벌」(경실련문고)은 '재벌은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를 부제로 단 책인데, 국민경제적 입장을 중시해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벌들의 비경제적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축재를 파헤친 이 책에서 공저자들은 "부당한 축재의 원인은 의사결정권의 소수집중에 있다"고 전제, 소유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공개와 종업원과 조합원의 소유에의 참여 및 재산권의 탈법적 세습방지가 그 대안.

재벌의 생성역사보다 현재와 미래전략에 비중을 둔 「재벌 날개를 달아라」는 국제화 사회에서 재벌이 모색해야할 생존전략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실천해야할 미래전략을 알아본 책. 프롤로그인 '재벌의 소유집중 더이상 안된다'에서 저자는 92년 5월의 정주영씨의 재벌해체 불가피론에 대해 "재벌의 변신은 타의보다 자의로, 기업의욕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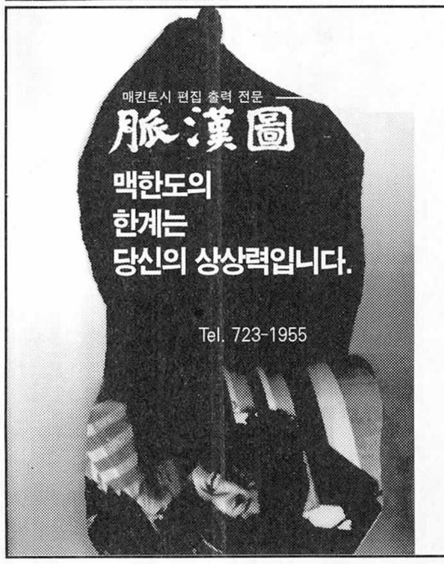
재벌을 다룬 10여종의 책이 출판돼 있다.

재벌의 미래상과 혼맥 다룬 관련서도

재벌의 미래상을 점치는 이들 책과 함께 재벌의 역할이나 성장비사 등을 알려주는 책들도 있다. 가족에 의한 지배와 경영, 가부장적 지휘체계, 진취적인 기업정신,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한국 재벌의 특성으로 분석한 「한국의 재벌」(스티얼스 외, 시사영어사)는 한국경제발전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을 집중조명한 책. 또 한국재벌경영사로 꾸며진 「재벌의 형성과 기업가활동」(김병하, 한국능률협회)은 삼성·현대 등 8개 재벌의 성장사를 형성시기부터 자본축적과정과 경영이념에 담아 다.

한편 재벌총수들의 일대기 모음인 「배짱·용기·신념의 금자탑」(주치호, 시대문학사)은 비평적 시각이 모자란 기업가 열전에 속한다. 혼맥을 통해 재벌을 분석한 이색적인 책도 있는데, "52개 그룹별로 가문의 안녕과 번영의 기회로 형성되는 재벌들의 상류사회 '족보'"인 「재벌과 가벌」(서울경제신문, 지식산업사)이 바로 그 책이다.

이밖에도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하락 등의 경제난이 재벌의 책임인가, 또 우리 기업인은 유달리 탐욕적인가 등과 같은 재벌들에 가해지는 비난의 목소리가 과연 절대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한 「재벌 비난받아야 하는가」(공병호, 예명사) 등의 책들이 재벌과 관련된 책들로 서점에 나와 있다. ──최태원 기자



매킨토시 편집 · 출력 전문
대표 금하연
간자 · 약자 · 벽자 · 고어에 문제가 있다면
맥한도와 상의하십시오.
· 단행본/학술전문서
· 사보/카탈로그/팜플렛
· 학습지/참고서/문제지
· 어학전문서(고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 족보/백과사전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310호